

주체사상과 통일문제

고 성 준

제주대 교수

I. 서 언

북한의 통일정책을 논하려면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권초기부터 공산전체주의체제로 구축되어 온 북한 사회에 있어서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즉 정치이념은 국가의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지침을 결정해 주는 최고이념이기 때문이다.

소련점령군의 지도와 통제아래 스탈린주의적인 소련전체주의 모형을 본딴 전체주의사회로 개편·출발한 북한은 이데올로기로 소련의 관계이데올로기인 맑스-레닌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스탈린 격화운동이 심화되던 1955년부터 독자적 이데올로기의 개발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시도하게 되어 1980년대에 이르러 체계화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다.

*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가 89년 6월 2일 주최한 세미나 발표 주제논문

특히, 주체사상의 체계화작업은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력승계자로 등장하는 김정일의 이론적 권위의 부각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은 카리스마도 혁명업적도 없는 혁명 2세대이기에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을 주체사상의 체계화에 앞장선 주체사상의 이론가로 부각시키는 일을 통해 이를 메꾸려 하게 된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1974년부터 주체사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며,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권력승계가 공식화된 후에는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완벽하게 체계화했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김정일의 사상가 내지는 이론가의 위상을 부각시켜 김정일의 권력승계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서 뜻하는 온 사회’는 전한반도를 지칭하기에, 이는 곧 남한의 이념과 그 정통성을 경쟁하는 통일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어떤 배경하에서 주체사상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그 체계화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일문제의 논리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주체사상의 기원

1.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용

북한 공산정권은 다른 공산정권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소련·중국·월남 등처럼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내전을 통해 공산정권이 수립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동독·폴란드 등과 같이 북한도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소련의 지도하에 공산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동구 나라에서들처럼 대부분 토착공산주의 세력이 중심이 되고 소련은 지도자만 내세우는 형식을 취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공산정권의 수립은 동구와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련점령군하의 북한에는 당시 朴憲永의 지원을 받는 국내파와, 金斗奉 등의 중국에서 돌아온 延安派, 그리고 소련군들과 함께 들어온 소련파와 만주에서 中共抗日聯軍 소속으로 항일공산활동을 한 김일성 등의 甲山派 등 4개의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소련점령군은 이 중 다른 어떤 공산세력보다도 국내 지지기반이 약했으며, 이데올로기상으로도 전혀 정리된 사상체계를 제시할 만한 처지에도 있지 않은 김일성 중심의 갑산파를 주축으로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정치적·이념적 뿌리가 전혀 없는 김일성 중심의 갑산파가 소련점령군의 후원과 지도하에 공산화를 구축해 나간 초기단계에서는 소련으로부터 정치이념과 제도를 맹목적으로 모방하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선공산당 北朝鮮分局」 제3차 회의(1945년 12월 17~18일)에서 당책임비서로 선출되었고, 이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북한에서의 권력체계를 확립한 김일성은 1946년 9월 9일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행한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총결에 대한보고」에서 해방된 조선의 사회발전 단계를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단계」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이념은 소련화된 마르크스-레닌주의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늘 조선의 민주주의의 단계는 결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떠나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발전의 법칙의 궤도 위에서 그것발 밑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오늘 조선에 공산주의를 당장 건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오늘 국제·국내정세와 조선사회 발전의 특성에 의거하여 조선사회를 발전시키는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또한 모든 민주건설에서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오늘 민주주의적 과업을 실행하는 데 반드시 적용되며 또 기침이 되는 가장 철저한 이론이며 예리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노동당 최초의 당규약이나 1948년 9월 9일 북조선노동당 주도하에 건립된 조선민주공화국의 건국헌법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적인

통치이념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조선노동당이 북한내의 모든 민주적 각 정당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된 것은 1956년 4월 23일에서 28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이다. 개정된 당규약의 〈제1장 당〉 부문에는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되었다.

2. 「主體」확립문제의 제기

그런데 북한에서 「主體」의 확립문제를 당내에서 公的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 28일 「黨선전선동원대회」에서 「黨 사상사업에서의 주체」를 주장한 연설을 통해 비롯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에 대하여 충성을 바쳤던 김일성이 당이데올로기의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주체」의 확립을 거론하게 된 것은 1953년 이후 전개된 內外의 도전으로부터 자기자신의 권력과 정책노선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즉, 1953년의 「스탈린」사망과 한국휴전을 계기로 노정된 국내파·연안파·소련파와의 당권투쟁에서 김일성이 자기의 권력을 옹호·강화하려는 전략상의 요청에 따라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적 계기는 「후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을 거쳐 中蘇 분쟁과 공산권의 대분열에 이르는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의 상황변화라는 대외적계기와 불가분의 교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통치노선에 바탕이 되어온 스탈린주의는 스탈린사망후 「후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격하운동은 그동안 「스탈린」의 후광을 업고 있던 김일성의 반대파, 특히 소련파로 하여금 김일성의 권력과 정책노선에 도전을 하게했다. 김일성은 소련파를 견제하고 당내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의 확립을 절대로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련을 믿고 자기의 독재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당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는 「反黨종파분자」요,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

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소련의 것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주체도 창조성도 없는 분자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1955년 12월 28일 그는 앞에서 언급한데로 당내에서 주체가 없이 남의 것을 베껴다가 외기만 하는 소련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식에서, 즉 당내 이질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개인권력의 확립을 위해 「주체」의 확립이라는 사상적 명분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주체의 확립문제 ② 혁명전통을 무시하고 「후루시초프」노선을 추종하는 소련파의 과오 ③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일치 ④ 조국통일의 두가지 전도(和戰兩面) ⑤ 혁명전통학습의 강조와 김일성직계의 옹호 등이다.

Ⅲ. 주체사상의 체계화—「金日成主義」化

1. 「金日成主義」化的 배경 및 과정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의 권력이 김정일어로의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이론화되고 체계화시킨 사상으로 제시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러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는 동시에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라는 변화의 형태로 시도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주의」화는 주체사상을 그동안 지도원리로 삼아온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 내지는 상위의 이데올로기로 공식화하려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 모택동 생존시 자신의 사상을 主義로 자칭해 본 적이 없는 점과 대비하여 김일성주의화는 특이할 만한 일이다.

김일성이 1971년 6월에 개최된 사로청 제6차 대회에서 처음 후계자문제를 거론한 이후, 당에서의 김정일의 지위는 빠른 속도로 상향조정되기 시작했고,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에서 서열 제4위로 부상되면서 후계자로 공식 인정

을 받았다. 그는 1983년부터는 당서열 2위를 굳히면서 명실공히 당정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북한이 내외로부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산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후계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김일성이 자신의 사후 혹은 퇴진후 예상되는 혼란을 예방하고, 그의 사상과 권위를 계속 절대화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는 점이다. 또한 김정일로의 후계자 결정은 김일성이 근대화 목표들의 추구와 혁명업원의 유지라는 2중적 노력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는 카리스마도 없고 혁명업적도 없는 혁명 2세대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정통성의 결여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그 하나로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라는 「공식이데올로기의 위상변화」를 통한 김정일의 이데올로기적 업적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때문에 북한은 김정일이 「영구불변의 진리」인 주체사상을 구현시키고 발전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북한주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문제해결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은 대외적으로 김정일이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김일성주의가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며, 세계의 모든 피착취·피압박 인민에게 투쟁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지도사상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는 사상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관련 책자에 의하면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는 생각을 가진 것은 1970년 5월경부터이며, 공식으로 제기한 것은 1974년 2월 19일의 전국 당 사상사업부문 일꾼 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이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서였다.

김정일은 또 이 연설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이

제 이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1974년 4월에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1976년 10월에는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한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김일성주의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당 독재국가에서 이데올로기의 최종적 해석권은 독재자 자신이 장악하는 경우와 같이,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정통적 해석권을 장악한다. 그리하여 1982년 3월에 그는 주체사상을 체계적이고 이론적 사상체계의 틀로 제시하려는 뜻이 담긴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게 된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이 논문이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연구, 선전과 교양을 위한 참된·교과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기념비적 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불멸의 전투적 기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일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이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곧 「김일성주의」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이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체계화(김일성주의화)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1982년 10월), 「혁명적 수령관(1982년 10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1983년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1983년 5월))」,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년 7월)」,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1987년 10월)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김일성주의」를 당규약이나 헌법에 공식이데올로기로 명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로동신문」, 「근로자」 혹은 당이나 정부 고위층의 연설문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김일성주의가 독창적 사상이 갖추어야 할 체계적인 철학·과학·역사이론이 미비하여 김일성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못갖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중·

소를 비롯한 공산권의 비난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 : 「金日成主義」

북한은 아직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북한은 대외용 책자를 통하여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에로의 정식화를 꾸준히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김일성의 사상이 「主義」로 불릴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가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주장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지 사실로서 받아들일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는 「김정일에 의해 재해석된 김일성의 주체사상」 혹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로서의 김일성주의」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김정일의 설명에 의하면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이론·방법의 체계」로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 체계」다. 여기서의 주체의 사상이란 자연과 사회의 전일적 안목을 주는 철학적 원리와 혁명적 세계관을 뜻하며, 주체의 혁명이론은 혁명투쟁에서 작용하는 객관적 법칙들과 원리적 문제들을 밝힌 혁명의 학설이고, 주체의 영도방법이라고 한다. 주체의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회·역사영역에 구현하며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진전한다는 사회역사원리와 매개나라, 매개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 자신이라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체의 사상이란 인간 중심의 사회역사관, 주체의 지도원칙의 정연한 이론체계로 확립한 사상으로 된다는 것이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자신과 세계를 바로 인식한 사람들, 근로민중이 세계의 주인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매개나라, 매개민족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실천활동의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체의 영도방법은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을 발동하여 해결해 나갈데 대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세계와 역사의 주체로 자각된 사람들의 창조력을 배가하고 그 힘을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도를 밝혀 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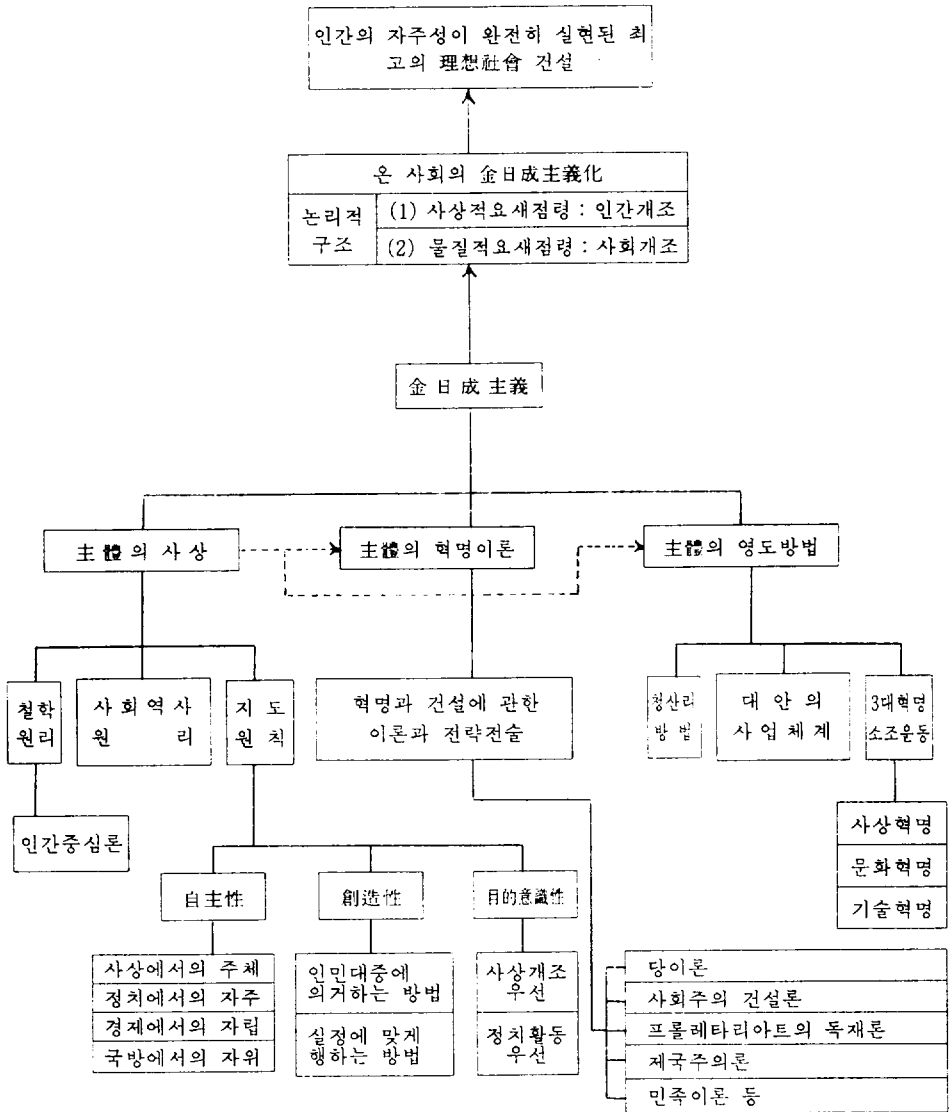
김정일은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사회」의 건설과 완성과정을 김일성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개조과정, 즉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과정으로 보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 사업의 총적 임무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김일성주의는 우선 「主義」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김일성 주체사상에는 없었던 순수 이데올로기적(pure ideology)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다름아니라, 「사유재산과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사회」라고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유토피아를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로 대체하였으며, 「唯物論的 世界觀」이 아닌 「인간 중심의 世界觀」을 표방한 것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김일성주의의 체계를 도식에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김정일이 정식화한 「김일성주의」가 최고 이상사회의 과학적 전도를 밝힌 것이며, 또한 그것은 인류의 이상사회 건설을 생산력 발전의 한 측면에서만 보고 세계의 주인인 인간문제를 소홀히 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한계성을 벗어나 인간중심, 인간위주로 공산주의 건설문제를 전개하고 완성시킨 것으로 규정하는 등 「김일성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더 우월한 이데올

金日成主義의 체계



로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김일성주의」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주성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우리 시대 혁명운동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그 보편성을 주장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다.

IV. 주체사상과 조국통일문제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목적의식성이다.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온 인간의 속성이기에 사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 수 없다. 다시말해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 때 그 일원인 개인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에서는 개인의 확정으로서의 이러한 집단을 '인민대중' 또는 '근로대중'으로 규정짓고 있다.

주체사상에서의 혁명의 논리는 바로 이러한 집단주의에서 전개된다.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한 사람인 황장엽에 의하면 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목적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구속과 연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혁명은 인민대중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때 그 인민대중을 남한의 인민대중과 불가분한 것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결국 통일의 달성을 혁명의 달성으로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가 주체사상의 논리를 민족통일문제로 연결시킨 내용은 다음의 책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와 사회과학출판사편 주체사상총서5,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에 가장 잘 소개되어 있다. 이 책들을 토대로 주체사상과 통일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1.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으로서의 통일론(남한사회의 자주화)

북한은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한국민족사회가 1945년 8월에 반만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지역은 만주를 근거로 항일투쟁을 해오던 김일성에 의해 해방되었으나 남한지역은 일본제국주의를 해방되었으나 남한지역은 일본제국주의를 대신한 미국의 식민지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란 뜻다 이른 민족해방의 연장인 것이다. 통일은 남한이 주장하듯 분단된 민족사회의 재결합이 아니고 남한을 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2. 인민민주해방논리(남한사회의 민주화)

주체사상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를 규정짓는 기본사회집단은 근로인민대중이다. 다시말해 인민대중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본질로 하는 인간이 그 본질적 특성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전제로서의 집단이다.

또한 혁명은 인민대중이 온갖 구속과 연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그런데 북한지역에서는 이미 인민민주혁명이 이루어져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었으나 남한의 인민대중은 아직도 미제국주의자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한국정부의 억압하에 있어 해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인민대중의 해방이 통일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의 논리때문에 북한은 남한해방을 목표로 하는 통일정책을 계속 강행하지 않을 수 없게 스스로가 묶여 있다고 여겨진다.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여기는 한 북한은 한국과의 평화공존을 계속 거부해야만 되고, 반제-남한해방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V. 맺는 말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추세는 국가간 관계에 있어 대결과 경쟁이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차원에서 의 데탕트시대의 전개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은 미-소관계의 개선은 물론이고 중-소관계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이 데올로기에 의해 경직되어 있던 한반도 주변의 국제환경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 그리고 소련과 탈이념적 협력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 아울러 미국 및 일본의 북한과의 협력시대도 열릴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북방정책은 남북한관계개선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최근 문익환목사의 북한방문을 둘러싸고 북방정책이 다소 주춤거리는 듯하지만 이 정책은 6공화국의 정권의 기반을 이루는 원칙이며 아울러 통일을 열망하는 사회계층의 폭이 증가하고 있기에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부체제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도 내부체제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체제와 위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두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그 이념적 경직성과 교조성에서 탈피하는 변화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모택동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화 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던 중공식의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어떠한 변화의 길을 택하든 그것은 북한이 통일문제에 대해 현실성과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이다.